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1/27~2025/02/02]

2025.02.03

[로봇]

- 이번 주의 이슈: 기대와 현실 괴리 확대
-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늘어난 로봇 이야기 분량. 본격적인 사업 진출 의지 재확인
- LG전자도 베어로보틱스 지분 51%로 확대. 사업 시너지 우선시
- 테라다인 로보틱스 인력 10% 감축. 최근 보스턴다이나믹스도 구조조정 단행한 바 있음

[방산]

- 이번 주의 이슈: 미국 방산 4Q24 실적
- 폴란드 계약 리스크 완전히 해소. 폴란드 측에서 강력 부인. 2차 계약 등 수주 지속 전망
- 대놓고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NATO. 한편 리투아니아 등과 협력 지속 재확인한 K-방산
- 트럼프의 미국판 아이언돔(Starwars 2.0) 구상 표면화. 차세대 방공 시스템 확보 추진

[항공]

- 이번 주의 이슈: 항공기 도입 현황 체크
- 계속되는 항공기 사고. 항공 수요 영향 미칠지 관심
- 설 연휴기간 인천공항 이용객 214만명 전망.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
- 보잉 25년 하반기 737-8 월 38대 이상 생산 전망. 기재 공급 개선 기대



Weekly Keyword

기대와 현실 괴리 확대

최근 로봇주 강세 지속. 휴머노이드 양산 시기 앞당겨지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 높아지고 있기 때문. 다만, 현재 상용화되어 판매되는 로봇 수요 부진한 상황에는 유의 필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0)

[기대와 현실 괴리 확대]

- 최근 실적 발표 등에서 로봇 관련 코멘트 다수 나오는 중. 휴머노이드 등 기술 기대감 높아지나,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로봇(협동 로봇 등)은 전방 수요 불확실성 계속. 기대-현실 괴리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Key Chart: 주요 로봇 기업 최근 코멘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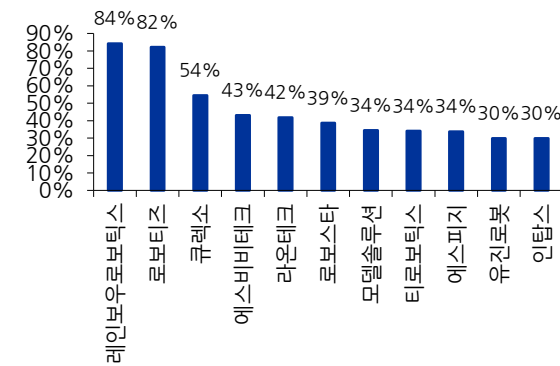
기업명	주요 내용
테슬라	■ 25년까지 옵티머스 1 만대 생산 목표 ■ 'Production Design 2' 내년 출시 예상 ■ 매년 10 배씩 생산량 늘리는 것 목표 ■ 연간 100 만대 체제 구축되면 제조원가 2 만달러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핵심 로봇 부품은 모두 테슬라가 자체 개발 ■ 26년 외부 판매 예정
삼성전자	■ 다목적 로봇 개발 집중 ■ 삼성의 AI/SW 역량과 레인보우로봇의 로봇 기술 결합해 차세대 로봇 개발 예정 ■ 로봇 AI 역량도 강화. 국내 유망 로봇 AI 플랫폼 투자 및 협력 등 추진
피규어 AI	■ 두번째 고객과 계약 체결(첫번째는 BMW) ■ 두 고객을 통해 향후 4년간 10만대 로봇 판매
현대차그룹	■ 아틀라스 25년 하반기 공장 투입 본격화
화낙	■ 로봇 수요 반등에도 중국/미국 수요 불확실성 계속
테라다인 로보틱스	■ 24년은 경기 둔화로 기업 투자 축소되었던 점 실적에 부정적 작용 ■ 장기 관점 산업 자동화 시장 여전히 긍정적 ■ 조직 개편 통해 수익성 개선 제고 추진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1/27~02/02)

[산업용 로봇]

-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올해 말 공장 투입

[서비스 로봇]

- LG전자, 베어로보틱스 콜업션 행사해 지분 51% 확보
- 두산로보틱스, 인천공항에 맥주추출 협동로봇 공급

[기타(정책/부품/SW)]

- 삼성전자, 로봇/AI 투자 및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 천명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자동화 기술 도입 촉진
- 나우로보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 에이딘로보틱스, 웨스턴 로봇핸드와 모방학습 기술 협력
- LG전자, 전 세계 인공지능 로봇 특허출원 1위 기록
- 서울대, 부드러운 소재로 강한 힘 만드는 메커니즘 개발

[Global]

- IFR 25년 로봇 5대 트렌드 발표. 휴머노이드/AI 강조
- 테라다인 로보틱스, 산업 자동화 약세에 인력 10% 감축
- 인튜이티브서지컬, 伊/西/葡 시장 직접 진출
- 메타, 5년내 LLM 능가하는 AI 아키텍처 부상 전망
- 1X, 가정용 로봇 개발 가속 위해 Kind Humanoid 인수
- 中,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 개장
- 中춘제 갈라쇼 휴머노이드 로봇 군무 화제
- 화낙, 800kg 가반하중 파레타이징 로봇 출시
- 독일 로봇자동화협회, 독일 로봇자동화 경쟁력 상실 우려
- 소프트뱅크, 스کیل드AI 펀딩 주도. 기업가치 40억 달러
- 화낙 3Q24 로봇 수주 7Q만에 전년비 플러스 전환



Weekly Keyword

미국 방산 4Q24 실적

미국 주요 방산 기업 4분기 실적 대체로 무난. 트럼프 리스크 반영되며 주가는 부진. 미사일 방어 등 트럼프 정책 방향성과 in-line하거나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 중심 선호 지속될 것으로 예상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8)

[미국 방산 4Q24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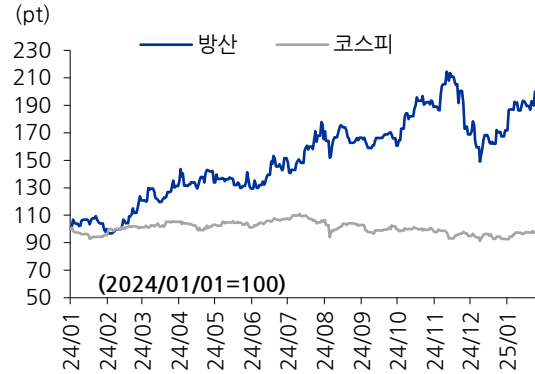
■ 미국 주요 방산 기업 실적 발표 완료. 대체로 탑라인 성장과 수주잔고 모두 견조했으나, 록히드마틴, 보잉 등 미 정부 계약 건들의 손실이 실적을 압박. 통상 미국 방산 기업 해외 수출 비중 약 20~30% 수준. 해외 노출도가 큰 기업은 RTX. 레이스온 방산 수주잔고 중 해외 비중 44%(전년비 +8%pt 증가). 트럼프의 미국 국방 예산 조정 리스크 잔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방산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 체질인 RTX의 주가 흐름 강세로 판단. 전통 무기 체계 대비 방공 등 고부가가치 무기 체계 선호. 최근 트럼프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확보 지시(탄도, 초음속, 첨단 순항 미사일). 트럼프 정책 방향성과 in-line 하면서 해외 비중 높은 기업 선호 추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

Key Chart: 미국 주요 방산 기업 4Q24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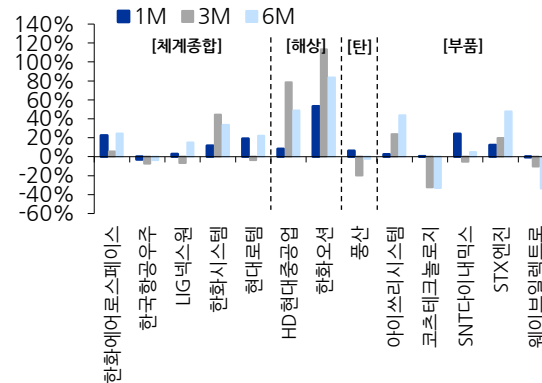
기업명	항목	4Q24	컨센서스	차이
록히드마틴	매출액	18,622	18,842	-1.2%
	조정 EPS	7.7	6.6	16.5%
RTX	매출액	21,623	20,513	5.4%
	조정 EPS	1.5	1.4	10.8%
보잉	매출액	15,242	16,450	-7.3%
	조정 EPS	-5.9	-3.1	-92.2%
제네럴 다이내믹스	매출액	13,338	12,848	3.8%
	조정 EPS	4.2	4.1	1.7%
L3 해리스	매출액	5,523	5,498	0.5%
	조정 EPS	3.5	3.4	1.5%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1/27~02/02)

[수주/계약]

- 폴란드, 'K-방산 계약 중단설' 공식 부인
- 방사청, 수주 목표 미제시. 내부적으로 230억 달러 목표
- 나토 수장, 방위비 증가 韓 방산에 내주면 안된다고 주장
- 석종건 방사청장, 2월 UAE 방문. 이집트 방문도 조율 중
- 폴란드, 한국 KGGB 유도폭탄 도입 관심
- 베트남 K-9 20여문 도입 위한 최종 협상 진행 중
- 방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K9과 타 화포 추가 도입 관심
- KDDX, 3월 중 초도함 수주업체 지정 전망

[기업별 이슈]

- 한화그룹 '레이저 사업' 한화시스템으로 일원화
- 천무 모듈 18대 폴란드 현지 인도 완료

[기타]

- 2월 17일부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개최
- 해군, 내달 개최 인도네시아 국제관함식에 노적봉함 파견
- 트럼프, 한국 등과 미사일 방어 강화 지시

[글로벌]

- 트럼프, 미국판 아이언돔 구축 개시 행정명령 예정
- 록히드마틴, 미 정부와 고정 가격 계약이 실적 발목
- 보잉, 2024년 17조 원 손실. 팬데믹 이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독일 KF-51 판터 전차 380대 도입
- 네덜란드, 라인메탈 스카이레인저 13.5억달러 주문
- 루마니아 피라냐 차륜장갑차 150대 추가 도입 예정
- 라트비아 스페인 ASCOD 42대 도입 계약 체결
- 이탈리아 수상, 차기전투기 공동개발 사우디 참가 지지



Weekly Keyword

항공기 도입 현황 체크

24년 항공기 순증가는 22대로 추정. 25년에는 16대 순증가 전망. 도입대수는 54대로 24년 40대보다 늘어나지만 처분 항공기도 증가. 올해도 글로벌 항공사들 기재 부족 상황은 지속될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8)

[항공기 도입 현황 체크]

- 2024년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도입 말소 현황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내 항공사 항공기 순증가는 22대로 추정. 40대 도입하고 18대 말소. 2025년 항공기 보유 현황 및 도입 계획에 따르면 54대 도입, 38대 처분하여 16대 순증가 예상. 도입 대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노후 항공기 등 처분 기재도 증가하여 순증가는 과거 호황기인 17~18년 수준(25~31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참고로, 2024년 보잉과 에어버스 인도 대수는 각각 348대, 766대(23년 528대, 735대)로 부진. 2025년에는 보잉 737-8 및 787 생산 Rate 램프업에 따라 기재 공급 소폭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적체된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항공기 공급 부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

Key Chart: 항공사별 기재 도입 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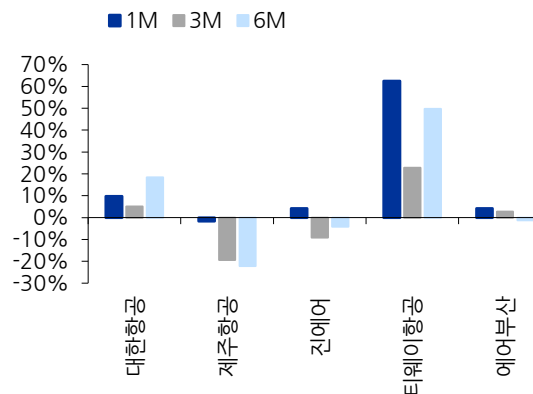
항공사	말소	도입	순증감
대한항공	11	15	4
아시아나항공	3	4	1
제주항공	1	0	-1
진에어	0	4	4
티웨이항공	0	8	8
에어부산	2	1	-1
에어서울	0	0	0
이스타항공	0	5	5
플라이강원	0	0	0
에어로케이항공	1	2	1
에어프레미아	0	1	1
합계	18	40	22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vise

항공 주요 뉴스(01/27~02/02)

[여객/화물]

- 설 연휴기간 인천공항 이용객 214명 전망
- 달러 환율 상승으로 2월부터 유류할증료 인상
- 에어프레미아, 홍콩-다낭노선 주 4회 신규 취항
- 에어로케이항공, 청주~일본 나고야 정기노선 취항
- 에어로케이항공, 청주~중국 구이양 노선 신규 취항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에어부산 화재 지원. 인력 파견·임시편 투입
- 대한항공 A350 일본 후쿠오카 운항 개시
- 대한항공 반려견 동반 승객 수 4년 만에 2배 증가
- 대명소노, 항공업 진출 추진. LCC 업계제편 본격화
- 제주항공 참사 예비보고서 발간

[기타]

- 국토부 27년 SAF 혼합 의무화 위해 사용목표 하반기 마련
- SAF 사용,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동참
-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 에어부산 사고기 위험평가 착수

[Global]

- 美 워싱턴 인근 여객기-군용 헬기 충돌. 67명 사망
- 사우스웨스트, 프리미엄 리트로핏 올해 중반 개시
- 프론티어가 스피릿에 합병 재제안, 스피릿은 거부
- 루프트한자, 에어발틱 지분 10% 인수
- 중국 3대 국영 항공사 수요 회복에도 적자 지속
- 에어버스, A380 생산 라인 A321XLR 생산 전환
- 보잉 777X 루프트한자에 26년 첫 인도 예정
- 보잉, 25년 하반기 737-8 월 38대 이상 생산 전망